

재외동포의



2014 | 12

특집 | 2014 세계한인차세대대회 21개국 126명 참석
모국과 동포사회 발전 견인차 역할 다짐

화제 | 재외동포재단, 고려인 동포 초청 모국 방문 행사

“모국 발전 덕분에 어깨 펴고 삽니다”

한민족 공감 | 박근혜 대통령 G20 등 다자회의 순방 마무리

FTA 타결 등 경제 영토 확장



OVERSEAS KOREANS FOUNDATION
재외동포재단





갈항사지동·서3층석탑

석가탑에 버금가는 아름다운 비례

경상북도 김천시 남면 오봉동 산기슭에 갈항사(葛項寺)라는 사찰이 있다. 통일신라 때 이 근처에 있었다는 갈항사의 이름을 딴 사찰이다. 758년 갈항사의 경내에 석가탑에 버금가는 아름다운 비례를 지닌 두 탑이 세워졌다. 발원자는 신라 제38대 원성왕(元聖王)의 어머니인 계오부인(繼烏夫人) 박 씨, 그녀의 오라버니 언적법사(言寂法師), 그녀의 여동생이었다.

갈항사터에 동·서로 세워져 있던 두 탑은 2층 기단 위에 3층의 탑신을 올린 일반적인 모습이며, 서로 규모와 구조가 같다. 기단의 네 모서리와 각 면의 가운데에 기둥 모양을 뾰루지 새겼는데, 특히 가운데 기둥은 두 개씩을 두었다. 몸돌과 지붕돌을 각각 하나의 돌로 구성하고 있는 탑신부는 몸돌의 모서리마다 기둥을 조각했으며, 지붕돌의 밑면에 5단씩의 받침을 마련했다.

동탑의 기단에 통일신라 경덕왕 17년(758)에 언적법사 3남매가 건립했다는 내용이 새겨져 있어 만들어진 연대를 정확히 알 수 있다. 두 탑 모두 꼭대기의 머리 장식만 없어졌을 뿐 전체적으로 온전하게 잘 남아 있다. 두 탑의 규모가 그리 크지는 않지만 각 부분의 비례가 조화를 이루고, 위아래 층 기단에 가운데 기둥을 두 개씩 새겨 놓고 있어 당시의 석탑 양식이 잘 담겨져 있는 탑이다.

1916년 도굴꾼이 사리장치를 노리고 탑을 넘어뜨리는 사건이 발생해 경북궁으로 옮긴 갈항사 석탑은 2005년 국립중앙박물관이 서울 용산으로 이전하면서 같이 옮겨가 지금은 그 아외에 다른 탑들과 함께 서 있다. ㉠



Cover Story

재외동포 차세대 리더들이 한자리에 모여 모국 기여 방안을 모색하고 글로벌 코리아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2014 세계한인차세대대회'가 11월 4일부터 7일까지 서울 역삼동 르네상스호텔에서 열렸다.

CONTENTS

재외동포의 창



02	한국의 일	갈항사지동·서3층 석탑
04	특집	'2014 세계한인차세대대회' 21개국 126명 참석
07	동포 소식	미국 델러스서 선보인 한국의 맛과 멋 외
10	기획 재외동포 이민사 12	투자 이민으로 개척한 뉴질랜드 한인사
12	화제	재외동포재단, 고려인 동포 초청 모국 방문 행사 성공한 한인 정치인, 고국 청년들에게 특강
14	글로벌 코리아	미국 캘리포니아주 아바인 시 최석호 시장 신주쿠한국상인연합회 발족 주역 오영석 회장 중국 상하이 'SOS 솔루션팀'의 강동한 팀장
16	지구촌 통신원	미국 중간선거 여성 한인 정치인들 두각
17	동포정책 Q&A	재외동포 권익 보호 위한 공증제도
18	한민족 공감	박근혜 대통령 G20 등 다자회의의 순방 마무리
19	동포의 창	국외 입양인 7명 모국 친가족 상봉 행사
20	OKF 뉴스	재외동포 대토론회서 통일 위한 동포역할 강조 외
22	동포문학	고풍산책
23	우리말 배워봅시다	바른 말 고운 말 날말 맞추기
24	고향 소식	철새 탐조 일제시대 건축물 기행
26	재단 공지	행복한 대한민국을 여는 정부 3.0

2014 12 December

발행인 | 조규형 등록번호: 문화-라 08249 발행처 | 재외동포재단 서울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558번지 외교센터 6층 전화 | 3415-0100 팩스 | 3415-0117
www.korean.net / webzine.korean.net 기획·편집 | 재외동포재단 홍보문화사업부 pr@okf.or.kr 제작 | 연합뉴스 인쇄 | 한신HP

▶ 재외동포재단(Overseas Koreans Foundation)은 대한민국 외교부 산하 정부출연기관으로 전 세계 700만 재외동포의 권익 신장과 거주국에서의 주류사회 진출을 지원하는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 본지는 국제교류기금을 지원받아 발행하고 있습니다.
• 본지는 webzine.korean.net을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 웹진의 정기구독을 원하시는 분은 www.korean.net 회원으로 가입하시면 매월 발간되는 '재외동포의 창' 웹진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 21개국 126명의 한인 차세대 리더가 참여한 '2014 세계한인차세대대회'가 11월 4일부터 7일까지 서울 역삼동 르네상스호텔에서 열렸다.

‘2014 세계한인차세대대회’ 21개국 126명 참석 모국과 동포사회 발전 견인차 역할 다짐

재외동포 차세대 리더들이 한자리에 모여 모국 기여 방안을 모색하고 글로벌 코리안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2014 세계한인차세대대회’가 11월 4일부터 7일까지 서울 역삼동 르네상스호텔에서 열렸다. 글로벌 한민족 공동체 구현의 중심기관인 재외동포재단(이사장 조규형) 주최로 열린 이번 행사에는 전 세계 21개국 126명의 한인 차세대가 참가했다.

동포재단은 1998년부터 매년 전 세계의 정치·경제·문화·법조·언론·예술 등의 부문에서 활약하는 재외동포 차세대 리더들을 고국으로 초청해 대회를 열어왔다. 이번 대회는 ‘새 시대 새 희망 글로벌 창조 리더’란 슬로건 아래 나흘간 열렸다. 예년에 비해 다양한 토론 프로그램이 마련돼 한인사회 속에서 차세대 리더의 역할과 공공외교관으로서의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모색했다는 평가다.

“차세대는 모국과 동포사회 상생의 견인차”

4일에 열린 개회식은 재외동포재단 홍보 영상 상영, 조규형 이사장의 환영사, 참가자들이 태극기와 거주국 국기를 들고 펼치는 퍼포먼스, 기조연설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조규형 이사장은 개회사에서 “세계가 주목하는 대한민국의 발전 바탕에는 세계 각국에서 활발히 활동하는 한인이 자리 잡고 있다”면서 “한인사회 발전을 위한 차세대들의 역할과 포부를 공유하고 나아가 모국과 동포사회의 상생 발전을 위한 견인차 역할을 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인도네시아 한상(韓商)인 송창근 KMK글로벌스포츠그룹 회장은 ‘휴먼 터치 매니지먼트’(HTM)라는 주제의 기조강연을 통해 주류사회 진출 방안 등에 관해 차세대들에게 조언했다.

개회식이 끝나고 조규형 이사장 주최의 환영 만찬과 일본 참가자인 민영치 퓨전 국악 연주가의 축하 공연이 이어졌다. 둘째 날인 5일에는 대륙별·지역별 차세대 포럼과 함께 국내 차세대들과의 교류 프로그램인 토크 콘서트가 열렸고 참가자들은 이어서 너머별(말이 없는) 공연 '비밥'을 관람했다.

“동해·독도 알리미 역할” 다짐

차세대들은 6일 오후 사이버 외교사절단 반크와의 교류 프로그램에 참여해 독도, 동해, 대한민국 역사·문화를 전 세계에 알리는 홍보 대사로서의 활동 방안을 논의했다. 이들은 독도와 대한민국 홍보 영상을 보고, 박기태 반크 단장의 ‘독도 평화 교육과 세계지도를 바꾸는 청년들의 위대한 도전’이라는 주제의 강연을 들었다.

박 단장은 “여러분은 현지에서 영향력이 있고, 앞으로도 더 크게 발전해 차세대 리더로 성장해 나갈 것으로 믿는다”며 “반크가 독도, 동해, 한국사, 한국 문화를 알려나가는 국가별 홍보 마케팅에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바란다”고 부탁했다. 참가자들은 반크가 선정한 20명의 분야



▲ 참가자들은 대륙별·지역별 차세대 포럼 등 다양한 토론 프로그램을 통해 한인사회 속에서 차세대 리더의 역할과 모국의 공공외교관으로서 활동 방안을 모색했다.

INTERVIEW ● 주목받는 한인 차세대

-탈북자인권 보호에 앞장서는 남수현 캐나다 이민변호사

남수현(29) 캐나다 한인 1.5세 변호사는 캐나다의 탈북자 2천여 명 가운데 10%인 200여 명을 만나 상담하고 도와줄 정도로 이들의 인권 보호에 앞장서고 있다. 세계적인 첼리스트를 꿈꾸었던 그는 2007년에는 캐나다 디지털 음악방송인 갤러시가 기대되는 아티스트를 뽑아 시상하는 ‘갤러리 라이징 스타 어워드’를 차지할 정도로 주목받는 신인 예술인이었다. 그러다 사람들과 더욱 적극적으로 교류하고 싶어서 2007년 토론토대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에 입학했다. 재학 중 탈북자를 돕는 북한인권단체 ‘한보이스’ 활동에 감동받아 적극 기담하면서 탈북자를 돕기 시작했다.

2010년부터 1년여 동안 자유아시아방송 ‘캐나다의 지금’이라는 프로그램의 담당자로서 활동하며 캐나다 탈북자들의 삶을 세계에 알렸다. 2011년에는 가장 큰 규모의 콘퍼런스인 ‘제10회 북한인권년대회’를 개최하는 데 앞장서기도 했다. 2012년부터 이민변호사로 활약한 그는 지난해 남수현 법률사무소를 차려 독립했고 온타리오주 법률구조공단 난민법률사무소에서 탈북난민 담당 변호사로서도 활동하고 있다.

“첼리스트, 통·번역가, 변호사, 제가 가진 재능이 모두 탈북자를 돕는 데 활용되고 있으며, 앞으로 어느 정도가 될지 모르지만, 탈북자들의 인권 수호에 힘을 보태고 싶어요.”



-뉴질랜드라디오DJ·힙합가수·패션브랜드 대표 장대망

뉴질랜드에서 라디오 DJ 겸 프로듀서, 힙합 래퍼, 부동산개발 대표, 기자, 패션디자이너 겸 브랜드 CEO로 활약하는 한인 1.5세 장대망(34) 씨는 민능엔터테인먼트이다. 고등학교 1학년 때 혼자 뉴질랜드로 유학 온 그는 오克兰트의 메시대학에서 미디어연구학으로 학·석사를 마친 2003년 부동산개발 회사 대망인베스트먼트(Daemang Investments)를 차렸고 동시에 전공을 살려 지역신문 기자로도 활동했다.

학창 시절부터 힙합과 랩에 심취했던 그는 라디오 DJ에도 도전했다. 2002년부터 4년간 뉴질랜드 라디오 채널 104.6MHz FM 힙합방송 ‘Esteel’ 프로그램(매주 월요일 오전 10시 30분)의 DJ 겸 프로듀서를 맡아 시청률을 ‘톱 3’까지 끌어올리기도 했다. 2008년에는 업종을 변경, 패션회사 ISBM을 차려 ‘하이엔드’ 의류(고급 캐주얼)를 생산하기 시작했다. 2009년에는 ‘뉴질랜드 패션위크’에 신진 브랜드로 조명을 받아 인지도를 전국으로 확대해 나갔다. 2011년에 시작한 양말 전문 브랜드 ‘롱블랙’ (Longblack)은 3년 만에 뉴질랜드 전역과 대만·홍콩 등 30개 매장에 납품할 정도로 인지도를 넓혀가고 있다.

2015년 봄에 힙합 앨범 발매를 준비하고 있는 그는 “다양한 문화 활동이 서로 시너지를 낸다고 확신한다”며 “앞으로 뉴질랜드의 청정 이미지와 예술에 대한 감정을 상업화하는 마케팅으로 세계 시장에 진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입양인 네트워크 이끄는 이남원 스웨덴 태권도관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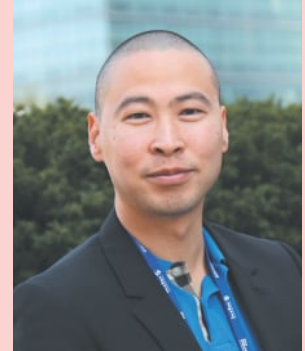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가장 큰 태권도 도장인 캄프스포츠헤우스트(Kampsporhuset)의 수련생은 700명에 이른다. 이곳의 관장으로 입양 한인인 다니엘 리(한국명 이남원·37) 씨는 세계한인차세대대회에 참가해 “한때 모국이 나를 버렸다는 서운함이 들기도 했지만 지금은 한국계 입양인이라는 사실에 자부심을 느끼고 싶다”고 털어놓았다.

이 관장은 생후 4개월 때 스웨덴 양부모에게 입양됐다. 13살 때 처음 태권도를 접하고, 태권도가 자신과 모국을 잇는 끈이 될 것으로 생각해 열심히 수련했다. 그 결과 태권도 6단에 합기도 4단의 무술 실력을 갖췄다.

은행원으로 근무하다가 태권도장을 차리게 된 이유를 묻자 그는 “모국을 향한 그리움이 있었기에 태권도에 매달렸고 좋아하는 일을 직업으로 삼고 싶었다”고 서슴없이 답했다.

이 관장은 세계한인입양인협회(KAA)의 부회장으로 2011년 스톡홀름에서 세계한인입양인대회를 개최하는 데 앞장설 정도로 입양인 네트워크에 애정을 쏟고 있다.

그는 “입양인을 한국의 큰 자산으로 인정해 끌어안을 때 입양인도 자신을 버린 모국에서 자랑스러운 모국으로 시선이 바뀔 것”이라며 따뜻한 배려를 호소했다.



-파독광부·간호사 후손 윤진범 독일 변호사

“파독광부·간호사 후손 가운데 사회적으로 성공한 이가 많은 건 부모가 얼마나 힘들게 일해 터전을 일궈놓았는지 알기 때문이죠. 저도 열심히 공부했고 덕분에 원하던 변호사 일을 하게 됐습니다.”

독일 프랑크푸르트 AGS 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사인 윤진범(28) 씨의 부모인 윤기대(63) 씨와 황정신(63) 씨는 파독 광부·간호사 출신이다.

윤 씨는 “말도 안 통하는 독일로 건너와 탄광과 병원에서 고생하신 부모님은 동양인이라 차별도 받았지만 늘 내게 남을 돕는 사람이 되라고 하셨다”며 변호사를 직업으로 선택한 이유를 밝혔다.

독일 헤센주의 바트나우히임사에서 성장한 그는 게센대학 법학과를 졸업한 2010년 변호사 시험에서 수석인 ‘Best Law Graduates’를 차지했다. 이후 2년간의 실습과정을 거쳐 2012년부터 정식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그는 “사회적 약자를 돕는 게 내게는 정의”라며 “약자들은 대부분 자신의 권리가 무엇인지 몰라 피해를 보는데 계신 없이 이들의 입장에 서주는 변호사가 되고 싶다”고 소신을 밝혔다.



별 홍보대사와 함께 그룹을 만들어 ▲한국의 왜곡된 과거(독도, 동해, 일본군 위안부) ▲한국의 역사와 문화(역사, 문화, 관광, 음식) ▲한국의 미래(통일 한국의 미래 청사진)를 주제로 2시간여 동안 토론을 펼쳤다.


또 한국 홍보 전략 방안을 함께 모색하며 참신한 아이디어를 도출하기도 했다. 한인 차세대들은 반크 연구원·홍보대사들과 의견을 나눈 뒤 한국 바로 알리기 사업에 공감을 표시했고, 각자 거주국에서 한국을 알리는 공공외교대사로 나서겠다고 의지를 보였다.

뉴질랜드에서 온 박지관 빅토리아대 학과장은 “각국 한인 차세대들이 한국을 알리고 잘못 알려진 부분을 바로잡는

일에 동참한다면 그 파급 효과는 엄청날 것”이라며 “한민족이라는 자긍심을 갖고 한국의 문화와 역사를 알리는 데 적극적으로 뛰겠다”고 약속했다.

반크는 그동안 만든 세계지도, 엽서, 책자 등 각종 홍보물을 한인 차세대들에게 전달했다. 이어 참가자들을 ‘한인 차세대 리더 공공외교 홍보대사’로 위촉했다.

차세대들은 7일에는 종합토론을 벌인 뒤 경북공 등 서울시 주요 명소를 둘러보고 폐회식 및 환송 만찬 참가로 대회 일정을 마무리했다.

한편 대회 다음날인 8일부터 9일까지 참가자 가운데 약 70여 명이 고국 체험의 일환으로 천안 독립기념관 견학, 방향의 동상 헌화 및 참배, 부여 외갓집 마을 전통문화 체험, 공주 한옥마을 및 궁도 체험, 공주국립박물관과 무령왕릉 관람 등의 일정을 소화했다. 

▼ 대회에 참가한 차세대 리더들은 6일 사이버 외교사절단 반크와의 교류 프로그램에 참여해 ‘독도, 동해 알리기’ 역할을 다짐했다.





미국 댈러스서 선보인 한국의 맛과 멋

청아한 국악 선율이 미국 텍사스 주 댈러스시의 가을 밤을 적셨다.

주 휴스턴 한국 총영사관 산하 댈러스 영사 출장소가 마련한 한국 문화의 밤 행사가 11월 5일 댈러스 시 문화 회관에서 열렸다.

댈러스·포트워스 지역에 거주하는 한인 동포 8만6천 명의 민원을 해결해주고자 지난 2012년 11월 문을 연 댈러스 출장소는 댈러스 주류 사회를 대상으로 한국을 널리 알리려고 처음으로 문화 행사를 개최했다.

댈러스 위성도시인 프리스코 시의 메이허 마소 시장, 헨리 송 댈러스 시 문화 담당 커미셔너, 시모나 플로레스 댈러스 시 이민·세관국장, 한국전 참전 용사, 캐나다·온두라스·멕시코 영사 등 외국인 250명과 한인 동포 250명이 행사에 참석해 한국의 멋과 맛을 즐겼다. 참석자들은 불고기, 닭강정, 김밥, 김치, 잡채, 전, 떡 등 한국 음식으로 저녁 식사를 한 뒤 국립국악원의 공연을 관람했다. 김동찬 댈러스 출장소장은 “이번 행사를 계기로 댈러스·포트워스 지역과 한국의 교류가 더욱 증진됐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 미국 텍사스 주 댈러스 시에서 열린 한국 문화의 밤 행사

브라질 한류 팬 대거 참여한 한국 문화 행사

브라질에서 한류 팬들의 모임이 갈수록 활기를 띠면서 한류의 저변을 넓힐 새로운 기회를 맞고 있다. 11월 1일 브라질 상파울루 시내에 있는 한국문화원에서 브라질 최대 한류 커뮤니티인 ‘시랑인가요’와 함께하는 한국 문화 행사가 열렸다.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된 이 행사에는 상파울루뿐 아니라 북동부 헤시피시, 남부 포르투알레그리시 등 주요 도시의 한류 팬 500여 명이 참가했다. ‘시랑인가요’ 회원들은 엑소(EXO), BAP, 슈퍼주니어 등 케이팝(K-Pop) 스타의 히트곡을 중심으로 그동안 익아온 댄스 실력을 유감없이 발휘했다.

우리 대표 음식인 불고기를 중심으로 한 한식 강좌가 열리고 실제 만든 불고기를 시식하는 순서도 마련됐다. ‘연애의 발견’, ‘팬클럽 시랑이야’ 등 한국 TV 드라마도 상영돼 참가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시랑인가요’는 디자이너를 꿈꾸던 한인 동포 여대생의 주도로 2008년 10월에 결성됐다. 현재 페이스북을 통해 활동하는 팬클럽

회원 수가 4만5천여 명이며 하루 홈페이지 방문자가 30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상반기 기준 브라질 내 한류 팬은 26만 명 정도로 추산된다. 이는 중남미 전체 한류 팬의 4분의 1을 차지하는 것이다.



▲ 브라질 상파울루 시에서 열린 한국 문화 행사



호주서 워홀러 · 유학생 권익 운동 펴는 한인 청년들

“호주에 있는 많은 워킹홀리데이 참가자(이하 워홀러)나 유학생이 현지 업주들의 부당 행위에 문제의식을 느끼고는 있지만 여러 가지 제약 때문에 스스로 목소리를 내기가 어려웠습니다. 이제는 뜻있는 한인 청년들이 힘을 합쳐 이를 구조적으로 해결하는 데 앞장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호주에 체류 중인 일부 한인 워홀러와 유학생들이 결성한 ‘코와이(KOWHY · Korean Working Holiday Youth)’는 호주에서 다양한 권익 침해로 고통받는 한인 청년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기 위해 탄생한 자발적 청년운동 단체다.

‘코와이’의 창립 회원인 임인영(22·여) 씨는 11월 10일 “그동안 한인 워홀러나 유학생이 호주에서 부당한 처우를 받아도 하소연할 데가 없고 이들의 목소리를 대변해 줄 단체가 전무했다”고 ‘코와이’ 결성 취지를 설명했다.

임 씨는 “대부분 이제 갓 학교를 졸업했거나 재학 중인 워홀러나 유학생들은 사회 경험이 거의 없다시피한 사회적 약자인데 또 외국에서 불이익을 받았을 때 이들이 기댈 수 있는 곳이 거의 없었다”며 “‘코와이’가 그 역할을 하고 싶다”고 밝혔다.

이들은 블로그와 페이스북 사이트 등을 개설해 한인 워홀러들에게 법률 조언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자체 제작한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도 대중에게 ‘코와이’의 결성 취지를 알리고 동참을 호소하고 있다.



▲ 호주서 워홀러 권익 운동 펴는 한인 청년들

스웨덴서 한식 홍보 행사 열려



▲ 스웨덴에서 한식 전도사로 알려진 입양 동포 출신 예니 발덴(38) 씨가 북유럽 최대 식음료 및 주방기구 전시회인 마이 키친(My Kitchen)의 한식 알리기 행사에서 11월 8일 잡채, 김치 볶음밥 등의 요리 시연을 펼쳐 눈길을 끌었다.

스웨덴에서 한식 전도사로 알려진 입양 동포 출신 예니 발덴(38) 씨가 북유럽 최대 식음료 및 주방기구 전시회인 마이 키친(My Kitchen)의 한식 알리기 행사에서 11월 8일 잡채, 김치 볶음밥 등의 요리 시연을 펼쳐 눈길을 끌었다.

스웨덴 방송사 TV4의 요리 경연 대회에서 한식을 이용한 특색 있는 요리로 1등을 차지하고 요리책까지 출간한 발덴 씨는 “한식은 정말 맛있고 색깔이 아름다운 음식”이라며 “스웨덴 사람들도 한식을 접할 기회가 적지만 일단 먹어보게 되면 반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지 일간 더겐스 뉴헤테르의 음식전문 기자이며 한식을 알리는 또 다른 주인공인 엔스 린데르

(49) 씨도 7일 고추장 닭볶음 요리를 선보였으며 내년 3월 한식에 관한 요리책을 펴낼 예정이다. 11일까지 열린 이번 행사는 스웨덴에서 한식에 대한 관심을 확산시키고 한식파 김치, 고추장, 해초면, 각종 양념 등 한국 농식품을 전시 홍보하기 위해 주스웨덴 한국대사관 주관으로 마련됐다.



칠레 한인기업인들 한류 팬클럽과 공동 커뮤니티 결성



▲ 칠레에 진출한 한국 기업 대표들과 현지 한류 팬클럽 연합회가 나눔 인 칠레 결성식을 열었다.

칠레에 진출한 한국 기업과 현지 한류 팬클럽이 함께하는 사회적 책임(CSR) 활동이 갈수록 활기를 띠고 있다.

한국 기업 대표들은 현지 한류 팬클럽 연합회인 ‘한류 칠레’, 한류 스타 이민호의 팬클럽인 ‘미노즈 칠레’와 11월 16일 ‘나눔 인 칠레’ 오프라인 결성식을 열었다. 10월 28일 페이스북에 온라인 커뮤니티를 만든 데 이어 본격적인 사회 공헌 활동을 위해 구체적인 행동에 나선 것.

‘한류 칠레’는 지난해 5월 결성됐으며 올해 6월에는 한국 기업 및 한인 동포 사회와 함께 ‘발파라이소 재건 기금 모금 행사’를 개최했다. 이 행사는 지난 4월 칠레 중부 발파라이소 시에서 일어난 대형 화재의 피해 복구 기금 마련을 위한 것이다. 당시 화재로 주택 2천900여 채가 완전히 불에 탔고 16명이 사망했으며 8천여 명이 부상했다.

‘미노즈 칠레’는 칠레의 국가적 환경 프로젝트인 ‘파타고니아 재식림 사업’에 참여해 ‘이민호 숲’을 조성하고 이민호를 명예 홍보대사로 위촉했다.

페이스북의 ‘나눔 인 칠레’ 커뮤니티에는 현재 160여 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한국과 한국 문화의 이미지를 높이는 것은 물론 한국 기업을 홍보하는 데도 상당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해외 한인 방송인 서울서 대한민국 홍보 방안 모색

‘대한민국 홍보와 국격 제고를 위한 해외 한인 방송인의 역할’이란 주제를 놓고 해외 한인 방송인들이 서울서 모여 해법을 모색했다.

연합뉴스와 연합뉴스TV는 11월 19일 서울 중구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한인 방송인 70여 명과 관계자 등이 참가한 가운데 ‘2014 세계한인방송인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포럼은 정부 부처 또는 민간단체 주도의 한국 홍보 활동이 지리적·문화적 한계 때문에 만족할 만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현지 사정과 문화·언어에 익숙한 한인 방송인과 한민족 방송 네트워크를 활용하자는 차원에서 기획됐다.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700만 재외동포의 눈과 귀 역할을 하기 위해 노력해온 한인 방송인들은 이 자리에서 대한민국을 널리 알리고 국격을 높이는 데 동참할 것을 다짐했다.

한인 방송인들은 연합뉴스, 한국방송공사(KBS),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KCA), 방송학회가 공동 주관하는 사흘 일정의 ‘제20회 세계한국어방송인대회’ 참가차 방한했다. 포럼에 앞서 18일에는 한인 방송인 총회와 서울프라이즈 시상식이 KBS 본관에서 열렸다. 서울프라이즈는 재외동포와 현지인을 위해 해외에서 제작된 한국어방송 프로그램 중 우수 프로그램을 대상으로 1993년부터 시상하고 있다. 20일에는 국회의원회관에서 세계 한국어 방송사 대표, 국내 방송 관계자들이 모여 세계 한국어 방송사의 역할과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 2014 세계한인방송인포럼에서 참석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투자 이민으로 개척한 뉴질랜드 한인사 고학력 젊은 층이 이주 주역



한 · 뉴질랜드 자유무역협정(FTA)이 추진된 지 5년 5개월 만인 11월 15일 타결됐다. 이로써 뉴질랜드는 7년 이내에 관세를 100% 철폐하게 된다. 한국은 꿀 등 일부 민감 품목을 제외한 96.5%에 대해 20년 내에 관세를 철폐한다. 이번 FTA를 통해 양측은 96% 이상의 높은 상품자유화에 합의했다.

뉴질랜드는 한국전쟁이 일어나자 1950년 10월에 유엔군의 일원으로 병력 5천350명을 참전시켜 120여 명의 사상자를 냈다. 경기도 가평에는 영연방 4개국 합동 참전 기념비가 있다. 양국은 1962년 3월에 공식적인 외교 관계를 수립하고 무역, 경제, 기술협력 관계를 증대해 나가기 시작했다. 또한 콜롬보 플랜에 의해 한국 유학생들이 뉴질랜드 정부의 전액 장학금 지급으로 낙농, 원예, 임업 분야의 생산과 마케팅 공부를 하기도 했다.

1971년 6월에는 주한 뉴질랜드 대사관이 개설됐고, 한국도 같은 해 7월 주뉴질랜드 한국 대사관을 개설했다. 뉴질랜드는 정치·외교 분야에서 전통적으로 우호 관계를 유지해 왔으며, 국제무대에서 상호 긴밀히 협조하면서 한국의 입장을 지지해 왔다. 한국의 경제 발전으로 양국 간의 경제 교류 규모는 계속 확대됐으며 1993년 11월에 직항로가 개설됨에 따라 한국 관광객의 유치에도 적극적인 관심을 보였다. 2012년엔 수교 50주년 기념 ‘한·뉴 우호의 해’를 맞아 한·뉴 학술회의, 한·뉴 비즈니스 포럼 등 다양한 문화 교류 행사를 통해 양국 국민 간의 이해와 친근감을 높이기도 했다.



이민 제한 정책 풀리며 한인 수 크게 증가

뉴질랜드의 한인은 대개 3개 지역에서 생활하고 있다. 가장 많이 거주하고 있는 곳은 북섬의 오클랜드로 오클랜드대학에만 700여 명의 한인 유학생이 있을 정도이다. 웰링턴 지역의 경우 1972년 첫 이민이 시작됐으며 회사원, 관공서의 공무원, 대학교수 등 안정된 직장을 갖고 있다. 크라이스트처치의 초기 한인 이민자들은 사슴농장을 주로 하며 농산물 등을 생산해 판매했다. 크라이스트처치 한인회는 1991년에 설립됐고 한국학교는 1994년 7월에 문을 열었다. 처음 2학급으로 시작한 학교는 현재 14학급, 학생 수 300여 명으로 커졌다.



1. 박근혜 대통령과 존 켈립 키 뉴질랜드 총리가 11월 15일 양국 FTA 타결을 선언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 오클랜드 푸드쇼를 찾는 현지인들이 한국 식품 전시관에서 김밥 만들기에 도전하고 있다. 3. 뉴질랜드의 첫 한인 국회의원인 멜리사 리(오른쪽)는 올해 3선을 기록했다. 4. 2004년 8월 반기문 당시 외교부 장관이 뉴질랜드를 공식 방문하자 한·뉴 경제인 협의회가 오찬에 초대해 선물을 건네고 있다. 5. 한국전쟁에 참전한 뉴질랜드 장병들이 휴식 시간에 음료와 함께 수영을 즐기고 있다(사진 제공:한뉴문화원). 6. 뉴질랜드 타우랑가 지역의 10개 학교 교직원들이 9월 20~21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서 뉴질랜드 유학 설명회를 개최했다. 7. 11월 23일 LPGA CME그룹 투어 챔피언십에서 우승한 뉴질랜드 동포 리디아 고(17)가 우승컵을 들어 보이고 있다.



뉴질랜드에 본격적인 한국 이민이 시작된 것은 1987년이다. 그 이전에는 극소수의 기업인, 태권도 사범 등이 진출했을 뿐이다. 뉴질랜드 정부는 당시 호주 정부처럼 아시아인 이민 제한 정책을 통해 영국계 중심주의를 표방하다가 1987년 새 이민법을 공포하고 유색인종에게도 이민 문호를 개방했다. 새로운 이민 제도에 따라 소수의 한국인 기업인이 이주했다. 그러나 뉴질랜드 동포는 1990년까지는 500여 명에 불과했다.

뉴질랜드는 1991년 11월 이민법을 개정해 인종, 국적, 성별, 종교 등에 대한 차별 없이 개인의 능력을 기준으로 이민을 허가하는 비차별 이민 정책을 취했다. 점수제에 의한 새로운 이민 정책이 시행됨에 따라 고학력 젊은 층의 이민이 급증했다. 1993년도에는 2천962명이 이주해 영국 이민자 다음으로 많은 수를 차지했다. 1994년 말의 공식 통계에 의하면 한국 동포는 6천 명을 넘긴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당시 현지 동포들은 체류자 등을 합치면 한인 인구는 8천 명이 넘을 것으로 추산했다. 오클랜드 지역에만 7천여 명이 거주하고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뉴질랜드 한인 사회의 규모가 커지면서 1991년부터는 지역별로 한인회가 결성됐다. 현재는 북섬에 오클랜드·웰링턴·와이카토·로토루아·황가레이·파머스톤노스·왕가누이, 남섬에 크라이스트처치·더니든·넬슨·퀸스타운 등 11개의 한인회가 조직돼 있다. '아오테아로아에서 한인들이 살아 온 이야기'라는 부제를 단 뉴질랜드 한인지는 2007년에 출판됐다. 뉴질랜드 한인사 발간위원회(편찬위원장 한일수)가 4년에 걸친 각고의 노력 끝에 이야기 형식으로 펴낸 한인사는 이 방면 연구로는 거의 유일한 자료이다.

뉴질랜드의 유명 한인으로는 멜리사 리(한국명 이지연·48) 의원을 들 수 있다. 그는 올 9월 20일 시행된 뉴질랜드 총선에서 집권 국민당의 비례대표 후보로 당선됐다. 언론인으로 활동하다 지난 2008년 한인으로는 처음 뉴질랜드 정계에 진출한 그는 이로써 내리 세 번 당선되는 영광을 안았다. 뉴질랜드 동포 골프선수인 리디아 고(17)는 역대 최연소로 올해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신인상을 거머쥐었다. 아마추어 자격으로 이미 2012년과 2013년 캐나다오픈에서 연달아 우승하며 두각을 나타낸 리디아 고는 LPGA에 데뷔한 올해 3승을 쓸어 담았다.

한국 외교부가 발표한 '2013 재외동포 현황'에 따르면 뉴질랜드 동포는 3만 527명으로 나타났다. 한인 인구는 뉴질랜드 내 아시아인 가운데 중국인(17만 명), 인도인(15만 5천 명), 필리핀인(4만 명)에 이어 네 번째로 많다. ㉞



▲ 모국을 방문한 러시아·독립국가연합(CIS) 지역 동포들이 서울 남산 N서울타워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 구소련 시절 강제이주를 경험한 고려인 부부 김블라디미르와 임크세니아 씨



재외동포재단, 고려인 동포 초청 모국 방문 행사 “모국 발전 덕분에 어깨 펴고 삽니다”

재외동포재단은 올해 고려인 이주 150주년을 맞아 러시아와 독립국가연합(CIS)에 거주하는 고려인 동포 20명을 초청해 모국 문화와 역사를 체험하게 하는 ‘고려인 모국 방문 행사’를 개최했다. 10월 27일부터 5일간 열린 행사에는 러시아,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우크라이나, 키르기스스탄 등 5개 나라에 사는 독립운동가 후손, 강제 이주·징용자와 후손이 참가했다.

방문단에는 현지 동포사회에서 공적이 크거나 모국 방문 경험이 전혀 없는 고령의 고려인 동포도 포함됐다. 러시아 출신 동포 부부인 김블라디미르(77)와 임크세니아(79·여), 우즈베키스탄의 고가이 아나톨리(78) 등은 1937년 스탈린 정권 하에서 가족과 함께 중앙아시아로 끌려간 강제 이주 피해 1세대로, 이번이 첫 고국 방문이다.

러시아 하바롭스크에 사는 김블라디미르와 임크세니아 부부는 29일 “힘없는 민족이었기에 강제 이주도 겪었지만 경제 대국으로 성장한 모국 덕분에 어깨를 당당히 펴고 삽니다”며 밝게 웃었다.


1937년 스탈린의 명령으로 구소련 연해주에 사는 고려인이 중앙아시아로 강제 이주 당할 때 김 씨는 1살이었고 임 씨는 3

살이었다. 당시 스탈린은 연해주 지역에 사는 고려인이 일본의 첩자 노릇을 할지 모른다는 의심 때문에 이런 일을 저질렀다. 이들은 가족과 함께 한 달 가까이 열차를 타고 카자흐스탄의 크질오르다에 도착했다.

김 씨는 “이듬해부터 황무지를 개간하고 가져간 뽕씨를 뿌려 벼농사를 짓기 시작했다”며 “중앙아시아 지역에 벼농사를 보급한 것이 고려인”이라고 소개했다.

1953년 스탈린 사망 후 고려인은 구소련 영토 내에서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게 됐고 김 씨는 하바롭스크의 비행전문학교에 진학해 민간항공기 조종사가 됐다. 그는 크질오르다에서 어려서부터 같이 자라 간호사가 된 임 씨와 결혼해 하바롭스크로 이주했고 지금은 둘 다 정년퇴직해 연금으로 생활하고 있다.

방문단 중에는 각각 독립운동가 허위와 최이봉 선생의 후손인 기가이 안나(23·여), 최빅토르(39) 씨도 포함됐다.

이들은 방문 기간 경기도 용인의 한국민속촌에서 전통문화를 체험했고 서울 남산타워, 경복궁, 대한민국 역사박물관, 인사동에서 모국의 정취를 맛보았다. 천안 독립기념관, 망향의 동산, 인천의 사할린 한인센터 방문 등 초청 일정을 마친 이들은 31일 출국했다. 



▲마크김 미국 버지니아주 하원은 지난 11월 26일 대일외국어고등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자신의 경험담을 전했다.



▲11월 13일 연아 마틴 캐나다 상원의원은 인천국제고등학교에서 학생들에게 “도전하는 삶을 살라”고 조언했다.



성공한 한인 정치인, 고국 청년들에게 특강 “기회가 왔을 때 도전하세요”

미 국과 캐나다에서 성공한 한인 정치인들이 국내 청년에게 꿈을 심어주고, 용기를 북돋워주기 위해 고국을 찾았다. 재외동포재단 초청으로 방한한 연사는 연아 마틴(한국명 김연아·49) 캐나다 연방의회 상원의원과 마크 김(한국명 김선엽·48) 미국 버지니아 주 하원의원.

이들은 ‘글로벌 시대 청년들의 꿈과 미래, 그리고 리더십’이라는 주제 아래 열린 ‘2014 재외동포 저명인사 초청 강연’에 참가했다. 연아 마틴 의원은 11월 12일 이화여대 스크랜튼국제학부를 시작으로 13일과 14일 각각 인천국제고와 성남외국어고 학생들을 찾았다. 마크 김 의원은 25일 홍익대, 26일 대일외고와 경희대, 27일 용인외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강연했다.

연아 마틴 의원은 14일 경기도 성남시 성남외국어고등학교 강당에서 학생들에게 “도전하는 삶을 살라”며 자신의 경험을 전했다.

그는 “이민 1.5세로 캐나다 현지인과 결혼했는데 혼혈아인 딸이 정체성 혼란 없이 사는 환경을 만들어 주려고 사회단체를 만들었고 그것이 토대가 돼 정치인이 됐다”면서 “교사로서의 삶에만 만족했다면 오늘날 캐나다 유일의 한국계 연방 상원의원은 없었을 것”이라고 털어놓았다.

그는 “2009년 상원의원으로 지명 받았을 때나 지난해 총리가 5년차에 불과한 내게 상원 수석부대표 자리를 제안했을 때 경험이 없어 두렵기보다는 설렘이 앞서 그 자리에서 ‘예스’라고 말했다”고 소개했다.

마틴 의원은 1~2학년 학생 400여 명에게 “어떤 일에 도전하든 봉사하는 마음가짐이 중요하다”면서 “나를 위해 하는 일은 나와 함께 묻지만 남을 위해 희생하고 봉사하는 것은 후세에도 영원불멸로 남는다”고 이타적인 자세를 잃지 말 것을 주문했다.

마틴 의원은 2009년 캐나다에서는 한국계 최초로 정년(75)이 보장되는 종신직 상원의원이 돼 한·캐나다 우호 증진에 앞장서고 있다. 2010년에는 한국전쟁 정전협정일인 7월 27일을 ‘국립 한국전 참전용사의 날’로 지정해 참전용사에게 긍지를 심어주었고, 한·캐나다 FTA 체결을 위해서도 적극적으로 뛰었다.

마크 김 의원은 버지니아 주 의회 역사상 최초의 동양인 하원의원으로, 3선을 기록하고 있다. 올해 초 버지니아 주의 동해 병기법 제정을 이뤄내 재미동포들의 정치력 신장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김**

미국 캘리포니아주 어바인 시 최석호 시장 중간선거에서 재선 성공



1. 최석호 시장(왼쪽)이 지난해 11월 20일 미국을 방문한 황명선 논산시장에게 기념패를 전달하고 있다. 2. 지난해 10월 28일 서초구청에서 자매결연 체결식을 하는 최석호 시장과 진익철 서초구청장

미국 캘리포니아 주 오렌지 카운티 어바인 시의 최석호(70) 시장이 11월 4일 치러진 중간선거에서 재선에 성공했다. 최 시장은 어바인 시의 인기 축제가 된 한인문화 축제를 5년 전 처음으로 주최하는 등 한인 1세대의 성공 주자다.

약 65개 국가, 30가지의 언어를 쓰는 다민족이 거주하는 어바인 시에서 미국 내 다문화인의 꿈을 이룬 대표적인 정치인인 그는 스스로 '비공식 주미 경제대사'를 자처하며 한국과 미국의 경제 교류 활성화에도 힘을 썼다. 최 시장은 지난해 10월 30년 가까이 어바인 시의 도시 개발을 도맡아 하는 어바인 컴퍼니, 파이프포인트 커뮤니티 등 어바인 시의 기업, 어바인 상공회의소 관계자 등이 포함된 14명의 경제사절단을 이끌고 한국을 찾았다.

최 시장 일행은 서울 서초구, 노원구, 판교 테크노밸리, 경희대 한방병원 등을 방문하고 상호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최 시장은 "성장하는 미국 도시인 어바인의 경제인들에게 한국을 소개하고 한국 경제인들과 교류하는 기회를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방문 의미를 설명했다.

최 시장은 미국 국무부가 파견하는 평화봉사단의 한국어 강사로 뽑혀 1968년 하와이로 갔다가 본토로 이주했다. 경희대 영문학과를 나온 그는 피츠버그 대학에서 교육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았고 서던캘리포니아대학(USC), 캘리포니아어바인대학(UCI) 교수로 재직했다.

1998년부터 6년간 어바인 시 교육위원을 지낸 뒤 시의원에 당선돼 8년간 시의회에서 일했던 최 시장은 2012년 시장에 당선돼 2년 임기를 마쳤다. 최 시장은 "교육학 박사학위를

갖고 대학교수를 지낸 덕에 교육위원에 적합한 인물이라는 평가를 받아 시의원이 됐다"며 "같은 일을 열심히 했더니 시의원을 거쳐 시장까지 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신주쿠한국상인연합회 발족주역 오영석 회장 “지역 밀착으로 한인타운 재기할 것”

한·일 관계 악화와 일본 내 반한 감정 고조 속에 경영난을 겪는 도쿄 한인 타운 상인들이 연합회를 구성, 재기 모색에 나섰다. 도쿄 신주쿠(新宿) 구의 한인 타운인 신오쿠보(新大久保)와 그 주변에서 영업 중인 한인 식당, 상가 업주 150여 명이 11월 6일 사단법인 신주쿠한국상인연합회(이하 연합회)를 발족했다.

이날 한인 업주 외에 신주쿠의 일본인 상인회 관계자, 흥동호 경제공사를 포함한 주일대사관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신주쿠의 아스카신용조합에서 발족식이 열렸다. 도쿄에 한인회가 있지만 신오쿠보 지역 상인들만의 단체가 결성되

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한류 붐을 타며 한때 '휘파람'을 불었던 신오쿠보의 한국 상인들은 2012년 이후 급격한 한·일 관계 악화 속에 긴 터널을 지나는 양상이다.

일본에서 확산하는 반한 감정과 극우 단체들의 험한 시위 등의 영향으로 매상은 최고 때에 비해 절반 이하로 줄었고, 근년 들어 50여 개 매장이 문을 닫았다. 한국 상인들이 떠난 자리에는 중국, 네팔 등의 상인들이 들어오고 있다고 연합회 관계자는 전했다.

한식집 체인을 경영하는 오영석 연합회 회장은 연합뉴스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한인 상인들이 힘을 모아 상황을 타개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절박감 속에 연합회를 결성하게 됐다”고 말했다. 위기 탈출의 키워드는 ‘지역 밀착’이라고 오 회장은 소개했다.

오 회장은 “신주쿠 지역의 10여 개 일본 상인회와 연합해 청소, 소방 훈련 등을 함께 함으로써 지역과 하나가 되는 모습을 보이려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신오쿠보를 다니는 셔틀버스도 만들어서 지역 주민 등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구상도 갖고 있다”고 소개했다.



▲ 신주쿠한국상인연합회 발족식에서 오영석 연합회 회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중국상하이 ‘SOS 솔루션팀’의 강동한팀장 위험에 처한 동포 돕는 수호천사



▲ 상하이 SOS 솔루션팀의 강동한 팀장

“중국에서 생활하는 한인들이 위험한 상황이나 어려움에 부딪치면 해결될 때까지 도와드립니다.” 중국 상하이(上海)에서 민간 봉사 활동을 벌이는 ‘사건·사고 SOS 솔루션팀’이 내건 ‘끌장 서비스’의 슬로건이다. 긴급 구조 요청에 대해 해법을 제시해 준다는 의미의 이름을 가진 이 조직은 동포들이 위험한 처지에 놓이거나 부당하게 손해를 볼 수 있는 상황에서 안전과 재산을 보호해주는 것을 목표로 2009년 상하이 한국상회 소속으로 출범했다.

일반 직장인부터 자영업자, 전문직 종사자 등 20여 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강동한 세정국제무역 동사장(이사장)이 팀장을 맡고 있다. 이들은 바자 수익금이나 팀원의 기부금 등으로 활동 경비를 마련하고 영사관이나 동포 단체, 변호사, 세무회계사 등의 협조를 얻어 해마다 40~70건의 사건·사고 해결을 도와주고 있다. 동포가 신변에 위

협을 느끼는 긴박한 상황에 처했을 경우에는 솔루션팀 팀원이 숙식을 함께하면서 정상을 되찾을 때까지 보호해주고 있다. 이 활동을 처음부터 이끌어온 강 팀장은 “중국에서 20여 년 사업을 하면서 어려운 일을 많이 겪었다”면서 “동포들이 부당하게 불이익을 당할 경우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절실히 느껴 이런 일을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솔루션팀은 지난 5년 동안 이 같은 활동을 꾸준히 전개해온 점을 인정받아 제8회 ‘세계 한인의 날’에 대통령 단체 표창을 받았다. 상하이 총영사관은 11월 5일 대통령표창 전달식을 열었다. 구상찬 총영사는 전달식에서 “SOS 솔루션팀은 어려운 일을 당한 동포가 도움을 받은 뒤에는 자발적으로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지속 가능한 시스템까지 갖췄다”면서 “다른 지역 동포 사회에도 참고가 될 만한 사례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시했다. 罊



◀ 미셸 박 스틸 씨 ▲ 제인 김 씨 ▶ 영 김 씨

미국 중간선거 여성 한인 정치인들 두각 캘리포니아 주 하원위원 등 압도적 당선

김종우 | 연합뉴스 로스앤젤레스 특파원

미국에서 11월 4일 치러진 중간선거에서 캘리포니아 주 여성 한인 정치인들의 약진이 두드러졌다. 오렌지 카운티 슈퍼바이저 제2지구에서는 미셸 박 스틸(한국 이름 박은주·59) 씨가 당선돼 오렌지 카운티에서 첫 한인 슈퍼바이저(공동 시장 격)로 기록됐다. 개표 결과 그는 경쟁자인 앨런 만수르 후보를 2만 표 이상의 압도적 차이로 누르고 당선됐다.

스티ल 당선자는 지난 2006년과 2010년 제3지구 조세형평위원회 위원으로 당선된 데 이어 이번에 슈퍼바이저로 선출되면서 캘리포니아 주의 대표적 한인 정치인으로 부상했다. 캘리포니아 주에서 카운티는 한국의 도(道)에 해당하는 광역자치단체이다.

인구가 300여만 명인 오렌지 카운티는 미국 남부 캘리포니아 지역에서 가장 부유한 광역자치단체이며 오렌지 카운티에 있는 어바인, 가든그로브 등 대부분 시에는 한인이 많이 살고 있다.

캘리포니아 주 하원의원 65지구에 출마한 영 김(한국 이름 김영옥·51) 씨도 현역인 샤론 퀵 실바 의원을 여유 있게 따돌리고 당선됐다. 김 씨는 이 지역 간판 정치인인 에드 로이스 연방 하원외교위원장의 보좌관을 23년 동안 맡아 지역 기반이 탄탄하다.

65지구는 오렌지 카운티의 플러턴, 부에나파크, 라팔마, 사

이프레스, 애너하임 등 아시아계 인구가 30%가량 차지하는 곳이다.

네 자녀를 모두 이곳에서 키우면서 로이스 위원장의 손발이 돼 지역 현안을 꼼꼼하게 챙겨온 그는 공화당 거물급 인사들의 지지를 받아 왔다.

김 씨는 중학생 때 미국령 괌에 이민한 한인 1.5세 격이다. 로스앤젤레스의 명문 사립대학 USC에서 회계학을 전공한 뒤 은행원으로 일하다 USC 동창인 남편 찰스 김 씨의 권유로 1992년 당시 주 의원이던 로이스 위원장 보좌관이 됐다. 정치 컨설턴트인 남편 찰스 김 씨는 캘리포니아 주 공화당 인사들과 친분이 두텁다.

재선에 도전한 제인 김 샌프란시스코 슈퍼바이저도 67%를 득표해 무난히 당선됐다. 뉴욕 출신 이민 2세인 김 씨는 스탠퍼드대에서 정치학과 아시아계 미국인 연구학을 전공한 후 버클리 캘리포니아대(UCLA) 법과대학원을 졸업했고 샌프란시스코 교육위원회 한인 최초로 당선돼 곧바로 의장에 선출된 바 있다.

14세 때 뉴욕 노숙자연대에서 일을 하면서 노숙자들의 구조적인 문제점을 인식하고 저소득층을 돕는 일을 하기도 했던 김 씨는 공직 이외에 샌프란시스코 지역 민권을 위한 변호사위원회 소속 변호사로도 활동 중이다. **췌**

재외동포 권익보호 위한 공증제도 재외공관 영사 확인으로 문서 인증

공증(公證)이란 계약서, 차용증과 같이 어떤 법적인 효력이 있는 문서 또는 물건의 순서에 대한 기술과 같은 사실을 공증인으로 하여금 증명하기 위한 제도이다. 국내에서의 공증은 공증인가를 받은 법무법인이나 합동법률사무소 또는 공증인 사무실 등에서 담당한다.

일정한 금전, 대체물, 유가증권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에 관해 차후 강제집행을 해도 좋다는 의사 표시가 담긴 공정증서를 작성하면 그 지급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복잡하고 번거로운 재판 절차를 거치지 않고 증서를 작성한 공증사무소(또는 재외공관)에서 집행문을 부여받아 바로 강제집행할 수 있다. 다만 건물·토지·특정 동산의 인도에 관한 집행문은 공증사무소가 아니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 부여하게 돼 있다.

A가 B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공증을 받기 위해 공증인을 찾아가면 공증인은 A와 B의 계약내용을 듣고 그 내용을 직접 문서화해 공증인·A·B가 함께 서명날인을 하는데, 이렇게 작성한 공증 서류를 공정증서라고 한다.

A가 B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당사자들끼리 차용계약서를 작성하고 그 서류를 가지고 가 공증인 앞에서 'A와 B가 차용계약서에서 명을 하고 도장을 찍은 것이 맞다'라고 진술하면 공증인은 A·B의 진술을 인증서에 기재하고 확인해주는데, 이러한 공증을 사서증서 인증이라고 한다.

공정증서의 경우 공증인이 계약의 내용을 모두 확인한 후 직접 작성하는 것과 달리 사서증서 인증의 경우에는 공증인이 그 내용에 대해서는 관여하지 않고 계약서의 위조 여부(A, B가 계약서를 작성한 사실)만을 확인해 인증서에 기재한다.

재외동포의 편익을 위해 해외에서의 공증 사무 취급이 필요해 1963년에 재외공관 공증법이 제정됐고, 이에 따라 재외공관의 영사가 재외공관 관할 지역 내에서 공증 사무를 담당하게 됐다. 재외공관 공증법은 공정증서의 작성, 사서증서의 인증 외에 재외공관의 '공증에 관계되는 문서의 확인(영사 확인)' 절차도 규정하고 있다.

사서증서의 인증에는 법인 의사록의 인증, 정관의 인정, 번역문의 인정 등이 있다.




▲ 중국 상하이총영사관의 공증과 사무실

영사 확인 대상에는 국내에서 사용할 외국의 공문서, 국내 행정기관에 제출할 문서 등이 있다. 구체적으로 인건행정부에 제출하는 인감증명 위임장, 고용노동부에 제출하는 고용계약서, 근로자 사망 보고서, 교육부에 제출하는 전출 아동 학적 서류, 병무청에 제출하는 국외 체재 목적 확인 증명서, 영주권 취득 사실 확인서, 전 가족 거주 사실 확인서 등이 있다.

A국 발행 문서가 B국에서 인정받기 위해서는 문서의 국외 사용을 위한 확인을 받아야 하며 일반적으로는 문서가 사용될 B국이 A국에 주재하고 있는 자국 공관에서 영사 확인 방식으로 A국 발행 문서의 신뢰성을 확인한다. 그러나 영사 확인은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시간과 비용 면에서 불편이 있어 우리나라, 미국, 일본 등 많은 나라가 '외국 공문서에 대한 인증 요구 폐지 협약(아포스티유 협약)'에 가입해 그 절차를 간소화하고 있다. A·B국 모두 아포스티유 협약 가입국인 경우 문서 발행 국가인 A국의 권한 당국이 자국의 문서를 확인(아포스티유 확인)하면 B국은 A국 주재 자국 공관에서 A국 발행 문서에 대한 영사 확인 절차 없이 아포스티유 확인만으로 B국에서 직접 사용할 수 있다.

Q 영사 확인을 받는 절차는 어떻게 되나?

A 영사 확인을 받고 싶은 문서를 직접 준비한 후 영사민원실에 접수하면 제출된 서류를 심의한 후 서류 맨 뒷면의 하단 좌측에 영사 확인 스티커를 부착하고 외교부 직인을 찍어서 교부한다. 



1. APEC 정상회의에 참석한 박근혜 대통령이 만찬에 앞서 오바마 미국 대통령 등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2. G20 정상회의에 참석한 박근혜 대통령이 존 키 뉴질랜드 총리와 대화하고 있다. 3. G20 정상회의를 마친 박근혜 대통령이 전용기 내에서 기자들과 만나 회의 참석 성과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 G20 등 다자회의 순방 마무리 FTA 타결 등 경제 영토 확장

박 대통령은 11월 9일 출국해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미얀마 네피도에서 개최된 동아시아정상회의(EAS) 및 아세안(ASEAN)+3(한·중·일) 정상회의, 15일부터 16일까지 호주 브리즈번에서 개최된 제9차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 등 모두 4차례의 정상회의에 잇따라 참석해 양자·다자 정상회의 등 다양한 외교 일정을 소화했다.

순방 기간 박 대통령은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등 미·중·일 3국 정상들을 비롯해 토니 애벗 호주 총리,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쾨라우트 잔오차 태국 총리, 존 키 뉴질랜드 총리, 살만 빈 압둘아지즈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제 등과 대화를 포함한 회담과 환담, 공동기자회견 등을 했다.

특히 중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 실질적 타결, 뉴질랜드와의 FTA 타결 등 경제 성과를 도출했으며 아세안+3 회의를 공동주재하며 한·중·일 3국 정상회의의 개최를 전격 제안하기도 했다.

박 대통령은 G20 정상회의 첫날인 15일 리트리트(Retreat) 세션에서 우리 정부의 규제 개혁 정책을 소개하고, 제1세션과 업무 만찬을 통해 정부의 핵심 성장 전략인 경제 혁신 3개년 계획을 홍보했다.

16일에는 제2세션에서 세계경제 성장, 회복력 강화 등에 대한 G20의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우리의 입장을 개진했다. 최근 미국의 금리 인상, 일본의 추가 양적완화, 신흥국 경기 침체, 기타 지정학적 리스크 등 하방 위험이 지속하는 상황에서 선진국의 통화정책 변화가 금융 불안을 야기하지 않도록 G20의 정책 공조를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진 제3세션에서는 에너지 협력 증진과 기후변화 대응 등에 대해 각국 정상과 의견을 교환했다.

G20 정상회의는 '브리즈번 액션 플랜'이라 불리는 공동선언문을 채택하고 폐막했다. 올해 G20 정상회의 의장국인 한국, 호주 미국, 중국 등 주요 회원국들은 이 공동선언문을 통해 향후 5년간 회원국들의 국내총생산(GDP) 규모를 현 성장 추세 대비 2.1% 이상 제고하고 민간자본의 사회 기반 시설 투자를 통해 경기 부양과 일자리 창출을 꾀하기로 했다. **김**

국외입양인 7명 모국 친가족상봉 행사 “내 생애 가장 기쁜 날”



▲ 국외 입양인 모국 초청 행사 참가자들이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너 무도 감격스러워 진짜인지 제 뺨을 꼬집어 봤어요. 꿈에 그리던 친부모를 만나 행복합니다.” 11월 7일 서울 서대문구 창천동 동방사회복지회의 회의실에는 종일 웃음과 울음이 끊이지 않았다. 국외 입양인 7명이 친가족을 만나 서로 그리워하던 세월을 풀어놓았기 때문이다. 가족을 만난 입양인들은 이구동성으로 “핏줄을 만난 게 기적 같다”고 기뻐했다.

이날 상봉은 보건복지부의 지원을 받아 동방사회복지회가 미국과 호주의 입양 한인 7명을 초청하면서 이루어졌다. 동방사회복지회는 6일부터 11일까지 국외 입양인이 뿌리 찾는 것을 돕는 ‘Home to Home’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이날 친가족과의 만남을 주선했다. 초청자들은 동방사회복지회를 통해 모국의 친부모를 찾았으나 경제적 형편이 어려워 연락만 주고받고 있었는데 이번 프로그램 덕분에 꿈꾸던 상봉을 하게 됐다.

오전 10시에 시작된 만남은 사회복지사와 통역을 사이에 두고 입양인과 친가족이 함께 자리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만나자마자



▲ 국외 입양인 모국 초청 행사 참가자들

서로 알아본 이들은 끌어안고 울며 가슴속 응어리를 풀어냈다. 거울에 얼굴을 비추어 닮은 것을 확인하기도 하고, 선물을 건네거나 가져온 앨범을 펼쳐 자리에 없는 가족을 소개하기도 했다.

내내 친엄마의 손을 잡고 놓지 않던 미국서 온 오정희(여·36) 씨는 “엄마를 만나보니 비로소 내가 누구를 닮았는지 알았다. 아직도 현실로 느껴지지 않을 만큼 얼떨떨하고 행복하다”고 기쁜 마음을 표

현했다. 오 씨를 만나러 달려온 친모 이 모 씨는 “6년 전부터 딸을 수소문했는데 지난해 11월에 동방사회복지회를 통해 딸을 찾았다는 소식에 만나길 애타게 바라왔다”면서 “잘 자라주어서 감사하다. 미안하고 고맙고 기뻐 따름”이라고 소감을 털어놓았다.

박성애(여·41, 미국) 씨는 양부모와 함께 친부모를 만났다. 이 자리에서 양어머니인 주디 케이나넨

(Judy Keinanen) 씨는 친엄마 김 모 씨에게 “당신의 사랑스러운 딸 성애는 많은 사랑을 받으며 잘 성장했으니 고통을 잊고 마음의 평화를 갖길 희망한다”고 말을 건넸다. 이어 “성애는 매우 건강하며 사랑스러운 두 아이의 엄마이고 성애를 매우 사랑하는 남편과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있다”고 전해 주변 사람의 눈시울을 적시게 했다.

입양인들은 6일 자신의 입양 기록을 열람한 뒤 위탁모를 만났고, 이어 동방영아일시보호소를 찾아 아이들을 돌보는 자원봉사에 나섰다. 입양인들은 8일 자신의 출생 병원을 방문한 뒤 9일까지 친부모 집에 머물며 가족과 뜻다한 이야기를 나눴다. 10일에는 동방평택복지타운 봉사활동, 전통문화 체험, ‘난타’ 공연 관람 등의 일정을 소화한 뒤 11일 귀국했다. **췌**

재외동포 대토론회서 통일 위한 동포역할 강조

통일 한국으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분단이 고착화된 남북한의 틈새를 메우는 데 재외동포가 크게 이바지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1월 28일 재외동포재단이 재외동포는 국력의 외연: 모국과 거주국을 잇는 가교'라는 주제로 서울시 서초구 국립외교원 대회의실에서 개최한 대토론회에서 백영옥 명지대 초빙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통일 과정에서 재외동포의 기여도가 높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에는 국내 학자를 포함해 미국, 중국, 캐나다, 일본 등의 재외동포 전문가 150여 명이 참석했다.

첫 번째 토론에서 '한반도 통일과 재외동포의 역할'이란 제목으로 발표한 백 교수는 "통일은 단순한 분단의 극복이 아니라 혈연, 지연, 언어, 문화, 역사 등을 공유하는 하나의 민족공동체를 형성하는 것"이라면서 "재외동포는 남북한 간 불신의 벽과 적대감을 여파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을 뿐 아니라 일부는 분단된 현실을 체험하지 않았으므로 이데올로기의 대립으로 잃어버렸던 민족의 동질성과 전통을 오히려 더 잘 보존하고 있어 민족공동체 형성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고 역설했다.

이어 그는 "통일을 위해서는 주변 4대 강국인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를 필두로 국제사회의 지지를 끌어내는 게 중요하다"며 "강대국을 비롯해 175개국 700만 명의 재외동포는 거주국에서 통일 공감대 형성과 남북 신뢰 구축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덧붙혔다.

러시아 고려인 4세이자 언론사 '러시아 포커스'의 한국지부장이인 미하일 씨는 패널로 참석해 "한·러 우호관계 형성에 고려인이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다"면서 "이를 위해 고려인이 한민족 정체성을 갖고 주류 사회에서 성공할 수 있도록 모국의 지속적인 지원이 중요하다"고 호소했다. 정신철 중국사회과학원 교수는 "통일을 위해 조선족 엘리트의 관계·학계에서의 역할, 기업가의 남북한 경제 교류, 남·북한에 친인척을 둔 조선족의 교류 등이 대립과 간극을 메우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은 조선족을 객관적 입장에서 바라 봐야 한다"고 주문했다.

재외동포는 북한 주민의 의식 변화를 촉진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허문영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거주국 국적자가 많아 운신의 폭이 자유로운 재외동포는 남북 교류협력 활성화와 폐쇄적인 북한의 주민 의식 변화에 도움을 줄 수 있다"며 "동포를 통해 북한 사회로 정보가 유입되고 소통이 촉진되면 개혁 개방을 통한 국제사회 진입이 이뤄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현장 질의자로 나선 주동안 미국 코리안리서치센터 소장은 "있으면 좋고 없어도 그만"이라던 재외동포의 역할이 이제는 통일 논의의 한 축으로 성장한 것에 큰 자부심을 느낀다"며 "한민족 동질성 회복을 위해 재외동포를 중심으로 '세계한민족문화재단'을 설립하자"고 제안했다. '재외동포의 국내 정치 참여와 현지 정치력 신장'을 주제로 한 두 번째 토론에서 주제발표에 나선 임채완 전남대 교수는 "국력의 외연이자 소중한 자신인 재외동포가 모국과 거주국에서 정치에 참여하는 것은 시대적 흐름의 반영"이라며 "정부는 구심력 강화를 위한 국내 정치 참여 유도과 거주국 주류 정치 참여를 통한 정치력 신장이라는 두 방향으로 지원을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패널로 참석한 김영근 재외동포재단 사업이사, 민병갑 미국 킨스칼리지 석좌교수, 박선영 경북대 아시아연구소 연구원 등은 "제일 중요한 것은 모국과 거주국에서 선거를 통해 정치 참여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이날 토론회에 앞서 윤덕민 국립외교원장이 '통일은 왜 필요한가'를 주제로 기조강연을 했으며 방형남 21세기평화연구소



▲ 11월 28일 재외동포재단 주최 '재외동포 문제 대토론회'에 참석한 국내의 동포전문가들은 한민족공동체를 만드는 통일에 재외동포가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장, 김경근 한국외교협회 부회장, 임영상 한국외대 교수, 마크 김 미 버지니아주 하원의원 등 동포 분야 행정 및 연구 전문가와 정치인 등이 참석해 다양한 의견을 쏟아냈다.

토론을 마친 후 조규형 이사장은 “통일 시대 글로벌 한민족네트워크 구축의 한 축을 맡은 것이 재외동포”라며 “토론회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을 재단 사업에 반영하고 또 정부 정책으로도 건의하겠다”고 약속했다.

2014재외동포재단 UCC공모전 · 학위논문상 시상

재외동포재단은 11월 19일 회의실에서 ‘2014 재외동포재단 UCC 공모전 및 학위논문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심사를 맡은 김승욱 교수와 윤휘탁 교수가 참가해 당선작에 대한 논평을 발표했다.

학위논문상 최우수상 수상작은 일본 우쓰노미야(宇都宮)대학교의 김영화 씨가 낸 ‘중국 조선족의 국제적 이동과 자녀교육’ (박사논문)이 뽑혔다.

우수상에는 신난희(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씨의 ‘탈북여성 디아스포라 경험 연구: 탈북여성의 적응 전략과 행위성을 중심으로’ 등 4편이, 장려상에는 이윤경(고려대) 씨의 ‘재중 한인의 초국가주의: 왕징 코리아타운 사례 연구’ 등 2편이 수상작으로 각각 선발됐다.



▲ 2014 재외동포재단 UCC공모전 및 학위논문상 수상자들이 시상식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전 세계 한글학교에 EBS 교육 콘텐츠 제공

재외동포재단은 전 세계 재외 한글학교 1천918개교에 EBS 교육 콘텐츠를 제공한다. 제공되는 EBS 교육 콘텐츠는 유아, 교양, 초등·청소년 분야와 관련된 995편의 EBS 프로그램으로 외장하드에 담겨 한글학교로 전달된다. 조규형 재외동포재단 이사장은 “전 세계 한글학교가 한글 교육 및 한국 문화 이해를 위한 교육 콘텐츠 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한글학교에서 콘텐츠를 잘 활용해 양질의 교육을 제공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재외동포재단은 앞으로도 EBS와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재외동포 자녀의 교육용 콘텐츠 제공 등 재외동포를 위한 교육지원 활동을 확대, 유지해 나갈 예정이다

조규형 이사장, 미국·과테말라, 멕시코 방문

조규형 재외동포재단 이사장은 11월 20일부터 8일간 멕시코 ‘재외동포차세대 II교육 개소식’에 참석하고 북중미 지역 동포 사회 사업추진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미국 애틀랜타와 멕시코, 과테말라를 방문했다. 조 이사장은 20일 미국 애틀랜타 한인회관을 방문하고 지역 한인회 관계자와 간담회를 열어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21일에는 과테말라시티의 코리아타운을 둘러봤고, 22일에는 한글학교에서 수업을 참관한 뒤 한인회가 개최하는 자선바자 및 체육대회에 참가해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24일에는 멕시코시티에서 열리는 ‘재외동포 차세대 II교육 개소식’에 참가한 데 이어 관계자 및 지역 동포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사업 추진 현황과 운영 전반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 

고풍산채

홍현숙 | 몽골 | 2014 재외동포문학상시 부문 가작

차운 것은 댓들에 어린 댓잎 그림자뿐이었다
 별이 중얼거리는 여름밤
 생각의 뒤편까지 연한 먹빛이 번졌다
 평상에 누워 바라보는 하늘의 여백이
 원추리꽃 속에 아기새 울음으로 깃들었다
 천 년 전 바다에 묻어 놓고 있었던 침향
 물결과 바람이 뒤란에 고이는 적요
 묵묵히 내려뜨린 도포 끈에
 서늘한 옥관자 갓끈 노리개
 건듯 잎사귀의 흔적에 얼룩지는 오후였다
 애오라지 한가지로 수놓아진 마음자리로
 조붓한 대숲 길을 거닐던 푸른 바람
 칠부채 끝에 달랑거리는 그날의 지수 향낭이었다
 서책을 어루만지던 소맷자락의 향기로 머물다가
 한 올 한 올 도드라지는 수자직 진솔 명주에
 먹물 한 방울이 툭 튀어 올라
 흰 도포자락을 더욱 희게 하였다
 여름 한철 채마밭 언저리에 머무는 비구름은
 함쭈 젖은 품안에서 은은히 전해져오던
 삭힌 남초 냄새였다
 먼 산그늘 단숨에 달려온 소나기가
 메마른 땅을 후두들기는 소리였다
 매옴한 생풀에 뛰어드는 빗줄기
 살살 눈이 감기는 생흙내 자욱했다
 젖은 칩꽃 고요히 피고 지는 저녁 무렵
 관자놀이애 육신거리는 기분 좋은 취기는
 보송보송한 살구 빛 민낯에 연하게 번지기도 했다
 청화로 난 앞을 이로새긴 백자 연적
 조요로운 기와 그늘에 얽게 풀어
 애뜻한 원지꽃 한 떨기
 그 무릎에서 살며시 피어난다

바른 말 고운 말

난장판

아이들만 집에 있으면 집안을 엉망으로 만들어 놓은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처럼 복잡하고 뒤죽박죽이 된 것을 난장판이라고 합니다. 이 난장판이라는 말은 어떤 뜻에서 시작된 것일까요?

옛날 과거장에서는 전국 각지에서 모인 수많은 선비가 질서 없이 들끓고 떠들어대서 정신이 없었다고 합니다. 이런 과거를 보는 마당에서 선비들이 떠들어대는 것을 일컬을 때 한자의 어지러운 난(亂)과 마당 장(場)이란 한자를 써서 난장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난장이라는 말 뒤에 판이라는 말은 일이 벌어진 자리를 뜻하는 우리 고유의 표현입니다.

난장판은 원래는 과거장에서 선비들이 떠들어대는 판을 가리키는 것이었지만 요즘은 여러 사람이 뒤섞여 어지러이 떠들어대거나 뒤죽박죽이 된 판을 뜻하는 말로 바뀌어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되/말/섬/석

우리 속담에 뒷글을 가지고 말글로 써 먹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글을 조금 배우고도 배운 것 이상으로 효과 있게 쓴다는 뜻입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 가운데는 곡식의 분량을 재는 단위에서 어느 것이 더 많은 것을 나타내는 것인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 이 속담의 뜻을 잘 생각해 보면 되와 말 중에서 어느 것이 더 큰 양을 나타내는 단위인지 쉽게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한 말은 열 되이고 한 되는 열 홉입니다. 즉 말은 되는 열 배고 되는 홉이 열 배입니다. 참고로 곡식 열 말을 한 섬이라고 하는데, 벼 두 가마니를 찢으면 쌀 한 섬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심청전에서 심청이가 공양미 삼백 석에 팔려갔다고 하는데, 석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석은 섬과 같은 단위입니다. 적은 양의 단위 부터 홉, 되, 말, 섬의 순서입니다.

▶ 낱말 맞추기 | 퀴즈를 풀며 정확한 표현을 익혀요

▶ 12월호 문제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오른쪽 방향 열쇠

- 수선화과의 어려해살이풀. 줄기는 높이가 20~40cm이며, 앞은 뭉쳐나고 비스듬히 선 모양이다.
- 서로 모르는 사람들 사이에서 양편이 알고 지내도록 관계를 맺어 줌. 일자리를 알선해주는 곳을 직업○○소 라고 한다.
- 아침밥을 차린 상
- 공학을 전문적으로 배우고 연구하는 사람
- 각 궁궐이나 성의 문을 지키던 무관 벼슬
- 사실에 근거하지 않고 생각만으로 그린 그림
- 일정한 규율과 질서를 가지고 조직된 군인의 집단
- 직책상 자기보다 더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
- 신방염보기. 혼인 첫날밤에 친척이나 이웃들이 신방의 창호지에 구멍을 뚫고 엿보는 풍속. 신방을 지키던 풍습이 차차 문란해져 창호지에 구멍을 뚫고 엿보는 오락적인 풍습으로 변했다.
- 사는 곳을 다른 데로 옮김
- 대기 중에 떠 있는 물방울이 햇빛을 받아 반원형으로 나타나는 빨강, 주황, 노랑, 초록, 파랑, 남, 보라 등 일곱 색깔의 띠
- 필기도구의 하나. 흑연과 점토의 혼합물을 구워 만든 가는다란 심을 속에 넣고, 같은 나무로 둘러싸서 만든다.
- 천 명의 군사와 만 마리의 군마라는 뜻으로, 아주 많은 수의 군사와 군마를 이르는 말
- 땃속을 흐르는 지하수의 줄기

▶ 11월호 정답

사	과		한	가	위		성	묘
	수	박			화	분		지
공	원		제	주	도		장	기
		유	물			칼	날	
		단				부		
	공	자			살	림	집	
대	사		통	풍	구		들	것
	다		바			종	이	
열	망		지	물	포			

아래쪽 방향 열쇠

- 고구려의 정치가·장군(?~665). 영류왕을 시해하고 보장왕을 옹립한 후 대마리지가 돼 정권을 장악했다.
- 험거나 고장 난 것을 고치는 일을 맡아 하는 기능공
- 꽃과 새를 그린 그림
- 눈 위에 서리가 덮인다는 뜻으로, 난처한 일이나 불행한 일이 잇따라 일어남을 이르는 말
- 학교에 다니면서 공부하는 사람
- 고려 시대에 둔 장군의 회의 기관. 때로 삼급 기관인 중방(重房)과 대립하기도 했다.
- 양쪽 강 하구에 있는 중국 최대의 상공업 도시. 난징 조약으로 개항한 무역항이다.
- 남의 물건을 훔치거나 빼앗는 따위의 나쁜 짓. 또는 그런 짓을 하는 사람
- 공이 있는 자에게는 반드시 상을 주고, 죄가 있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벌을 준다는 뜻으로, 상과 벌을 공정하고 엄중하게 하는 일을 이르는 말
- 아랫도리에 입는 옷의 하나. 위는 통으로 되고 아래에는 두 다리를 꿰는 기량이 있다.
- 무기형을 신고받고 징역살이를 하는 죄수
- 개공장 물이 흘러 나기도록 길게 판 내
- 말기루 따위를 반죽하여 소를 넣어 빻은 음식. 삶거나 찌서 조리하는데, 떡국에 넣기도 하고 국을 만들어 먹기도 한다.

철새 탐조 일제시대 건축물기행 근대문화 중심도시 군산 기행



우는 진풍경을 볼 수 있다. 철새는 탐조 회랑 또는 금강 철새 조망대에서 감상할 수 있다.

탐조 회랑은 관광객이 몸을 드러내지 않고 철새를 가까이에서 관찰할 수 있도록 설치한 시설이다. 군산 나포면 십자들에 접한 금강호 제방을 따라 길이 150m, 높이 2.5m 규모로 조성돼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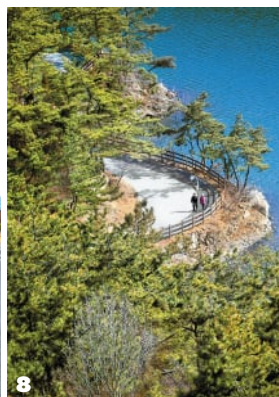
군산 성산면의 금강 철새 조망대는 철새 테마 관람·체험 시설이다. 고배울 망원경과 파노라마 카메라를 갖춘 탐조 전망대, 영상관, 수족관, 동물표본실, 인공 연못 등이 있다.

근대사 따라가는 도보여행

철새 탐조 후에는 군산의 근대 건축물을 바탕으로 박물관, 미술관, 공연장, 북카페 등이 조성된 내항 일대를 둘러본다. 군산에는 일제강점기에 축조된 건물이 산재해 있다. 일제는 조선의 쌀과 자원을 수탈해 가기 위한 거점 도시의 하나로 군산을

전 북 군산시는 금강호와 새만금 방조제가 자리해 철새 탐조 여행지로 안성맞춤이다. 군산 북부 금강 하구는 갈대가 무성하고 모래톱과 갯벌이 넓게 형성돼 철새에게 풍부한 먹이와 보금자리를 제공한다. 쇠백로, 해오라기 등 여름 철새와 도요새, 물떼새 등 나그네새가 금강 하구를 중간 기착지로 삼는다.

군산에서 쉽게 볼 수 있는 겨울 철새는 가창오리, 큰고니, 쇠기러기, 흰죽지 등 10여 종에 달한다. 매년 겨울이면 가창오리 수만 마리가 일시에 날아올라 석양으로 물든 하늘을 가득 메



1. 군산을 찾은 겨울 철새 떼 2. 금강 철새 조망대의 전경 3. 영화 8월의 크리스마스 촬영지인 전북 군산 초원사 진관은 하루 평균 1천여 명이 방문하는 관광 명소이다. 4. 연중 빼어난 야경을 선사하는 은파호수공원의 물빛다리 5. 옛 조선은행 군산지점 건물에서 탈바꿈한 근대건축관 6. 장미갤러리 7. 철도 관광지로 재탄생한 군산 임피역 8. 월명공원 산책로 9. 일본식 사찰 동국사를 위에서 내려다본 모습

선택해 항만을 조성하고 철도를 놓았다. 부두에는 호남과 충청도의 곡창지대에서 수탈한 쌀을 저장했던 창고가 즐비했다.


군산시는 2008년부터 근대문화 중심도시로서의 위상을 높이고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근대문화도시 조성 사업을 추진했다. 이를 통해 2010년 진포해양테마공원, 2011년 근대역사박물관이 탄생했다. 옛 조선은행 군산지점은 근대건축관으로, 옛 일본 제18은행은 근대미술관으로 재탄생했다. 또 장미동에 자리한 일제강점기 건축물은 미즈카페, 장미공연장, 장미갤러리 등으로 변모했다.

군산 동쪽 임피면에 위치한 임피역도 명소로 재탄생했다. 나무로 만든 출입문을 열고 임피역 안으로 들어서면 아담한 대합실이 한눈에 들어온다. 대합실에는 과거 임피역의 모습을 보여주는 조형물과 전시물이 들어서 있다. 역사 앞에는 일제강점기 전국 최대 농민항쟁인 옥구농민항일항쟁 기념 조형물이 세워져 있다. 일제의 악랄한 수탈 정책에 항거한 농민들이 만세를 부르는 모습이 부조로 묘사돼 있다.

군산 근대문화도시는 유엔-해비타트·아시아경관디자인학회·후쿠오카 아시아도시연구소가 주관한 '2014 아시아 도시경관 대상'을 수상했다. 아시아 도시경관상은 아시아의 우수한 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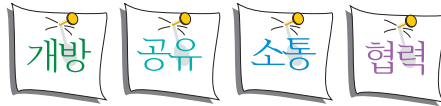
관을 세계에 알리기 위해 2010년 창설한 경관 관련 국제상이다.

군산의 자연미는 월명공원과 은파호수공원에서 체험하게 좋다. 월명공원은 월명산을 중심으로 드넓게 포진해 있다. 봄이면 동백꽃과 벚꽃이 만발하고 가을에는 단풍으로 물든다. 또 여름 녹음과 겨울 설경도 빼어나다.

은파호수공원은 군산 도심 서남쪽 지곡동에 위치해 있다. 계절별로 꽃이 흐드러지게 피고 햇살에 반짝이는 물결이 아름다워 군산 시민의 사계절 휴식처로 사랑을 받는다. 은파호수공원을 밤에 찾아가면 화려한 야경을 감상할 수 있다. 호수를 가로지르는 370m 길이의 현수교인 물빛다리가 아름다운 경관 조명을 선사한다. 



행복한 대한민국을 여는 정부 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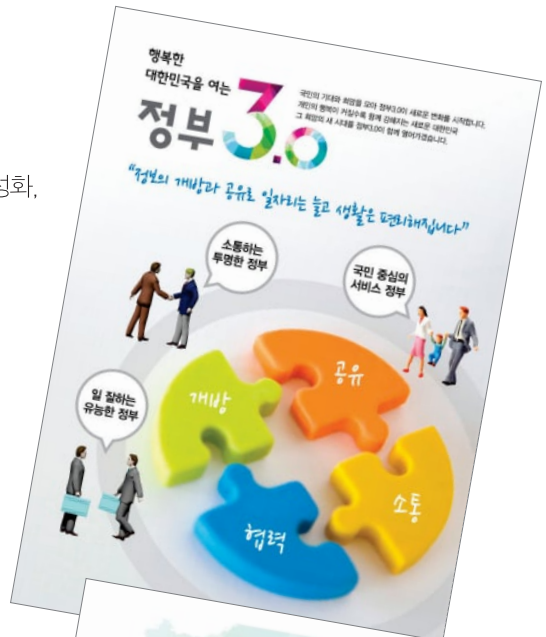
“정보의 개방과 공유로 일지리는 늘고 생활은 편리해집니다”

정부 3.0이란 공공정보를 적극 개방·공유하고,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고 소통·협력함으로써 국정과제에 대한 추진동력을 확보하고 국민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함과 동시에 일자리 창출과 창조경제를 지원하는 새로운 정부운영 패러다임입니다.

국민의 기대와 희망을 모아 새로운 변화를 시작하고 특별한 내일을 준비합니다. 개인의 행복이 커질수록 함께 강해지는 새로운 대한민국 그 희망의 시대를 정부 3.0이 함께 열어하겠습니다.

중점 추진 과제

- 소통하는 투명한 정부
공공정보 적극 공개로 국민의 알권리 충족, 공공데이터의 민간 활용 활성화, 민·관 협치 강화
- 일 잘하는 유능한 정부
정부 내 칸막이 해소, 협업·소통 지원을 위한 정부운영 시스템 개선, 빅데이터를 활용한 과학적 행정 구현
- 국민 중심의 서비스 정부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 통합 제공, 창업 및 기업 활동 원스톱 지원 강화, 정보 취약계층의 서비스 접근성 제고, 새로운 정보기술을 활용한 맞춤형 서비스 창출



동포사회 생생한 소식을 기다립니다

한인 사회의 다양한 소식(한인회, 상공회, 한글학교 행사 등)과 이민의 애환이나 널리 알리고픈 미담 등을 보내주시면 게재해서 고국과 전 세계 한인사회에 전하겠습니다. 자랑할 만한 소식, 미담, 성공적인 행사 등이모저모를 글과 사진으로 전해주세요.

원고 보낼 곳: wakar@yna.co.kr
shaorong@okf.or.kr
(원고 A4 한장 이내)



여행경보 신호등제도

해외여행을 하는 우리 국민을 위해 세계 각 국가와 지역의 위험수준을 단계별로 구분하고 행동요령을 안내하는 제도입니다.



남색경보(여행유의)

해외체류자 : 신변안전유의



황색경보(여행자제)

해외체류자 : 신변안전 특별유의
해외여행예정자 : 여행필요성 신중 검토



적색경보(철수권고)

해외체류자 : 긴급응무가 아닌한 귀국
해외여행예정자 : 가급적 여행 취소, 연기



흑색경보(여행금지)

해외체류자 : 즉시 대피, 철수
해외여행예정자 : 여행 금지

특별여행주의보(특별여행경보 1단계)

해당 국가 전체 또는 일부 지역에 적색경보(철수권고)에 준하는 효과가 발생합니다.

특별여행경보(특별여행경보 2단계)

기존의 여행경보단계와는 관계없이 해당 국가 전체 또는 일부 지역에 '즉시대피'에 해당하는 효과가 발생합니다.



EUROPE
124,000

CIS
491,000

CANADA
205,000

USA
2,091,000

CHINA
2,573,000

JAPAN
892,000

MIDDLE EAST
25,000

AFRICA
10,000

SOUTHEAST ASIA
296,000

OCEANIA
188,000

CENTRAL AND
SOUTH AMERICA
111,000

“700만 재외동포,
세계속의 한국입니다”

재외동포재단, 세계 700만 재외동포와 함께 밝은 내일을 만들어 갑니다

재외동포재단은 재외동포들이 거주국에서 민족정체성을 유지하고, 스스로의 권익과 지위를 향상시키며, 역량을 결집하여 모국과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OVERSEAS KOREANS FOUNDATION

재외동포재단